

경성제대 ‘국문과(일문과)’ 출신 서두수 연구*

- 『만엽집(万葉集)』 번역을 둘러싼 김억과의 비교를 통해-

박 상 현** · 김 양 숙***

(e-mail: koreaswiss@khcu.ac.kr)

目 次

1. 들어가면서
 2. 서두수와 김억의 『만엽집』 번역스타일
 3. 서두수와 김억의 『만엽집』 번역의도
 4. 서두수와 김억의 학문적 토대
 5. 나오면서
-
-

1. 들어가면서

2012년 현재까지도 우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詩歌)집인 『만엽집(万葉集)』의 한국어 완역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완역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경성제국대학¹⁾에서 조선어학조선문학을 전공한 고(故) 김사엽(金思燁 : 1912년~1992년)이다.²⁾ 그는 작고하기 직전까지 2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엽집』 가운데 권16까지를 한국어로 옮겨, 일본의 성갑서방(成甲書房)에서 출간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1-413-A0001)

** 제1저자, 경희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일본문화학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연구교수 일본학

1) 이하, ‘경성제대’로 약칭.

2) 김사엽이 『만엽집』을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했던 것은 다음과 같이 고대 한국학 연구를 위해서라고 한다. “이 歌集(『만엽집』을 가리킴. 인용자주)이 지니고 있는 特異性이 直接的으로 우리 語文學 民俗學 宗教 其他分野에 걸쳐 研究上 빼놓을 수 없는 價値 있는 參考文獻이 되기 때문이다.”

金思燁(1984) 『韓譯 万葉集 1-古代日本歌集』, 成甲書房, p.3

했다. 『한역만엽집(韓譯万葉集)-고대일본가집』 (1~4)³⁾이 그것이다.⁴⁾

그런데 김사엽에 앞서 일제강점기에 『만엽집』을 ‘조선어(朝鮮語)’로 번역하여 조선인에게 소개한 번역자가 있었다. 경성제대의 ‘국어국문학강좌’에서 당시의 ‘국문학(國文學)’인 ‘일본문학(日本文學)’을 전공했던 서두수와 시인이자 번역가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억이 그들이다. 특히 이들은 제국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2년과 1943년에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만엽집』의 조선어역을 각각 발표했다.

서두수는 『만엽집』에 실려 있는 4500 여수의 작품 가운데서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한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을 1942년 11월 2일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했다. 한편 김억은 「만엽집초역(万葉集鈔譯)」과 「선역애국백인일수(鮮譯愛國百人一首)」를 통해 『만엽집』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소개했다. 『만엽집』의 발췌 번역인 「만엽집초역」은 1943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고, 「선역애국백인일수」⁵⁾는 1943년 7월 20일부터 같은 신문에 게재되었다.

서두수와 김억은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을 매일신보라는 동일 매체에 발표했다라는 점에서, 따라서 당연한 말이지만 그 예상 독자가 동일했다는 점에서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데 번역스타일의 측면에서 그리고 번역의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들에게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

본고에서는 서두수가 아카데미즘을 표방한 경성제대에서 제국의 학문인 ‘국문학’ 곧 ‘일본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다는 데에 주목하여, 그가 김억과 다른 『만엽집』 번역스타일과 번역의도를 가지게 된 경위⁶⁾를 설명해보고자 한다.⁷⁾

3) 제1권은 1984년에, 제2권은 1985년에, 제3권은 1987년에, 제4권은 1991년에 각각 출간됐다. 한편 『만엽집』 권17부터 권20까지의 미완성 유고는 『김사엽전집』(제12번, 박이정, 2004년)에 실려 있다.

4) 『한역만엽집』이 어떤 번역대본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박상현(2008) 「『한역만엽집(韓譯万葉集)』의 텍스트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회.

5) 총 100수(首)의 와카(和歌)가 실려 있는 데, 여기에는 『만엽집』의 와카뿐만이 아니라 에도(江戸)시대 가인(歌人)의 와카도 수록되어 있다.

6) 물론 본고에서 그 ‘경위’가 필요하면서도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느 정도는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김영삼은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源氏物語-경성제국대학의 교육실태와 수용양상-」에서 서두수가 『겐지이야기(源氏物語)』에 대해 언급한 것을 근거로 “서두수의 源氏物語는 ‘내선일체’를 표방하는 친일적 행위의 도구였다. 서두수는 친일과 수재를 양성한다는 경성제국대학의 이념대로 키워진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지적이다. 다만 본고의 목적은 서두수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에 있지 않고, 그가 경성제대의 ‘국문과(일문과)’라는 제

2. 서두수와 김억의 『만엽집』 번역스타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두수는 현 이화여자대학교인 이화여자전문학교(이하, 이화여전)의 교수로 있으면서⁸⁾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만엽집』에서 병사의 노래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한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을 매일신보에 연재했다.

그는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어떤 식으로 번역할 것인가, 곧 번역스타일⁹⁾에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1월 2일에 발표된 제1회의 글이다.

말할나위도업게스리 이防人歌를 形成한形式이 조선詩歌의形式과 규격에맞지안
흔곳에 첫제로 부질업은 어린짓을 하게된原因이잇섯다-면辨明갓지만 卽 五七五
七七이란短歌形式이和歌의典型임은再言할것까지도못되는일이다그러한것을偶
數言數와偶數句數가普通인조선詩歌의틀에 흉내로나마음겨실자니무된感覺과둔
한才分으로어찌勘當될일일짜저어하기를거듭하엿다(11월2일자).¹⁰⁾

그리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그는 병사의 노래를 일본 와카의 5음(音)·7음·5음·7음·7음에 따라 조선어로 번역했다고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러나어쨌든 될수잇는대로 意味로뿐만아니오 形式까지도-적어도言數에잇서
서라도 全然다른傳統을가지고온 두가지를 가싸히 그려보게한것이 이제실으랴
는 拙譯이다(11월 2일자).¹¹⁾

예를 들면 서두수는 『만엽집』 권20에 실려 있는 4341번 작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도에 들어가 그 학문을 얼마나 체화했는가를 그의 『만엽집』 번역을 통해 살펴보는 데 있다.
김영심(2003)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源氏物語-경성제국대학의 교육실태와 수용양상-」 『일본연구』 제21집, 한국의국어대학교일본연구소, p.40
8) 1937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의 북리뷰 코너에서 서두수는 조윤제의 저서인 『조선시가사강(朝鮮詩歌史綱)』을 서평하는데, 거기에 “무더운 여름 찌는 듯한 研究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또한 1938년 1월 1일에 발간된 『삼천리문학』 제1집에는 「빛나는 梨花女專門 文科 全貌」에 문과의 교수진 명단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서두수가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1937년 경에는 이미 이화여전에 재직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매일신보 1939년 7월 22일자에 따르면 1939년 경에는 이화여전의 이화보육사무과장을 겸했다. 덧붙여 1941년 3월 1일 발간된 『삼천리』에 의하면 서두수는 이화여전에서 고유섭, 이태준, 이희승 등과 동료였다.
9) 여기서는 정형시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10) 서두수(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11) 서두수(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권20·4341

橋の 美衣利の里に 父を置きて 道の長道は 行きがてぬかも

서슴는고야(5) 미에리짜그곳엔(7) 아비홀로니(5) 길고긴이내갈길(7) 참아못가서슴네(7)

(後記)¹²⁾ 어미여힌절문邊防직이의眞情의吐露다. 사람네 가슴파기를과고든다(11월 5일자).¹³⁾

이와 같이 일본 와카의 형식적 전통인 5·7·5·7·7을 준수하면서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하고자 했던 것이 서두수의 기본 방침이었다. 물론 아래의 작품과 같이 그것에 벗어난 번역도 있기는 했지만, 서두수의 번역 방침은 기본적으로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

권20·4321

畏きや 命被り 明日ゆりや 草が共寝む 妹無しにして

惶恐하고야(5) 큰부르밧자와(6) 세는날부턴(5) 무속무처잠드리(7) 지어밀쳐나고서(7)

(後記) 惶恐히聖上の 부르심을 저어하는 心隈는 그모양그데로의恐怖는아이아니다 (후략. 11월 3일자)¹⁴⁾

그런데 서두수가 무리를 하면서까지도 일본 와카의 단가(短歌) 형식인 5·7·5·7·7을 지켜가면서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옮기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그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는데, 좀 전에도 인용했듯이 그는 11월 2일자에서 “어쨌든 될수잇는대로 意味로뿐만아니오 形式까지도-적어도言數에잇서서라도 全然다른傳統을가지고온 두가지를 가짜히 그려보게”했던 것이다 (11월 2일자).¹⁵⁾

서두수는 병사의 노래에 나타난 ‘의미’ 곧 내용뿐만이 아니라 ‘낯설기’는 하지만 ‘제국의 문학’인 일본 와카의 ‘형식’ 곧 5·7·5·7·7이라는 음수율도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移植)’하고 싶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병사의 노래의 조선어역을 그는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한편 김억의 『만엽집』 번역스타일은 어떠했을까? 서두수와는 다르지만 김억에게도 『만엽집』의 작품을 조선어로 번역할 때 철저한 룰이 있었다. 31음 곧 5·7·5·7·7로 된 와카를 초장이 3·4·3·4이고 종장이 3·5·4·3으로 끝나는 ‘양장(兩章)시조형’으로 번역한다는 규칙이었다. 예컨대 다음과 같다.

12) ‘後記’가 존재하는 ‘의미’는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3) 서두수(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14) 서두수(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15) 서두수(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권4·639

吾背子かかく戀ふれこそぬばたまの 夢に見えつゝいねらえすけれ
 (吾背子我 如是戀禮許曾 夜于玉能 夢所見管 寐不所宿家禮)
 이몸을(3) 아니닛고(4) 생각을(3) 하는탓가(4)
 꿈속을(3) 그님이뵈여(5) 잠못이뤄(4) 하노라(3)16)

이와 같은 규칙은 31음이 아닌 38음 곧 5·7·7/5·7·7로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선두가(旋頭歌)에도 엄격하게 지켜졌다.

권16·3852

鯨魚とり海や死よる山や死よる 死ぬれこそ海は潮干て山は枯よれ
 (鯨魚取 海哉死爲流 山哉死爲流 死許曾 海者潮干而 山者枯爲禮)
 바다야(3) 죽을거○17)(4) 산亦是(3) 죽을거랴(4)
 죽길래(3) 물이나가고(5) 풀마른가(4) 하노라(3)18)

김억이 『만엽집』을 번역할 때 그 형식에 관계없이 5구체(句體)인 단가나 6구체인 선두가를 모두 조선인에게 익숙했던 양장시조형으로 옮겼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당시의 조선인에게 『만엽집』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데 많은 고심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김억이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양장시조형을 선택한 것에는 자신이 그 형식에 익숙해 있었다는 측면¹⁹⁾과 함께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는 그의 번역관도 깊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이와 같은 김억의 번역스타일에 대해 임선묵은 『선역애국백인일수-안서문학일반-』에서 김억이 일본의 와카를 양장시조형으로 번역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마치 시조처럼 읽는 기분에 젖게 하여 시조의 정신과 와카의 정신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한다.²¹⁾ 또한 최현식은 「이광수

16) 박경수(1987) 『안서 김억전집』 제3권, 한국문화사. p.464

17) ‘○’ 표시는 판독하지 못한 글자를 나타낸 것이다.

18) 박경수(1987) 『안서 김억전집』 제3권, 한국문화사. p.465

19) 김억이 양장시조형에 익숙해 있었다는 것은 그가 1944년에 발간한 한국어류 한시번역시집인 『꽃다발』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는 황진이(黃眞)의 한시(漢詩)가 “님찾아 꿈길가니 그님은 나를찾아 / 밤마다 오가는길 언제나 어긋나네 / 이後란 같이떠나서 路相逢을 하과져.”와 같이 양장시조형으로 번역되어 있다.

박경수(1987) 『안서 김억전집』 제3권, 한국문화사. p.293

20) 김억은 『오너의 무도』의 ‘역자의 인사한마디’에서 “詩歌의 譯文에는 逐字, 直譯보다도 意譯 또는 創作的무드를 가지고 할수있게없다는것이 譯者의 가난한생각엿 主張입니다.”라고 자신의 번역관을 명확히 밝힌다.

김억(1923) 『오너의 무도』, 조선도서주식회사. p.14

21) 임선묵(1981) 『선역애국백인일수-안서문학일반-』 『국문학논집』, 단국대학교국어국문학학과. p.192

와 ‘국민시’에서 ‘일본정신’의 주체적 심화보다는 그것의 변안, 다시 말해 조선화로 비친다고 말한다.²²⁾ 요컨대 임선묵과 최현식의 지적은 김억이 『만엽집』을 조선어로 옮길 때 이국화(외국화)가 아닌 자국화 전략으로 그것을 번역했다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결국 서두수의 『만엽집』 번역스타일이 원문중심주의·출발언어(日本語)중심주의였고 낯설게 하기였다면, 김억의 그것은 도착언어(朝鮮語)중심주의였고 익숙하게 번역하기였다.

그런데 서두수는 『만엽집』을 조선어로 옮길 때 왜 원문 중심주의·출발언어 중심주의, 낯설게 하기, 곧 이국화(외국화) 전략을 취했고, 김억은 도착언어 중심주의, 익숙하게 번역하기 곧 자국화 전략을 선택했을까? 그것을 『만엽집』의 번역의도와 관련 지워 검토해보고자 한다.

3. 서두수와 김억의 『만엽집』 번역의도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일본 고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지난 침략 전쟁 때 활용된 일본의 고전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였고, 한국에서는 과거 황국신민화의 수단으로 활용된 일본 고전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시각에서 ‘식민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학문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 김영심²³⁾, 박광현²⁴⁾, 박상현 등이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들 연구 가운데 『만엽집』 번역에 관한 유일한 논문은 박상현의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이다.²⁵⁾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아카데미즘을 표방한 경성제대에서 제국 일본의 ‘국문학’인 ‘일본문학’을 전공한 서두수는 이화여전의 교수로 있으면서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매일신보에 『만엽집』 가운데서 병사의 노래를 뽑아 ‘조

22) 최현식(2008) 「이광수와 ‘국민시」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p.323

23) 김영심(2003)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源氏物語-경성제국대학의 교육실태와 수용양상-」 『일본연구』 제21집, 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연구소.

24) 박광현(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9집, 한국일본학회.

25)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선어'로 번역한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을 연재했다. 여기서 그는 다음의 인용문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以下拙譯이 數로서는 그全部²⁶⁾임으로 惑意味가 그곳에서 얼마간이라도 바로 옮겨있다면 그作品自體가 說明해줄것가태 絮說²⁷⁾을삼가는터이다마는 어찌튼 이에서 벌서우리는 『眞正한』-짜정 眞正한 『日本心』의血脈을 豫想할수잇 습을 말하려 한다(11월 2일자).²⁸⁾

數로짜진다면 말할수업시 엄청난比例로 父母그중에도 어머니 十七首쯤은 안 해와離別하기서러운 表懷를 『아모런숨김업시』 노래하고 있다 나는이 『아모런 숨김업시』 사람을 산그들精神속에 眞正한 忠君과 愛國의 精神이 오히려 保藏되어잇습을 요지음 『防人精神』을 말하는이들에게 보여서는아니될것일짜 (11월3일자).²⁹⁾

이구김살업는마음(천황과 일본을 위해 죽음을 돌보지 않는 병사의 마음. 인용자주)이 이 亦記念한 語感으로 험박담은 『大君』 『わが大君』 니하는聖上을 우르러 一死忠君을能히한다 純情이殉情을이룬다 正直한嗚咽이 偉大한慟哭을이룬다 그리하여이에는 오직더러 퍼지지안는피의脈動이同一하여서이다 이同調的인 피의論理-이것이 바야흐로 防人精神이며 眞正한日本心이다(11월 3일자).³⁰⁾

위의 인용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듯이 서두수는 『만엽집』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에서 병사의 정신(防人精神)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일본심'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일본심' 곧 '진정한 충군과 애국의 정신', '피의 동맥'·'피의 논리'³¹⁾를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移植)'하고 싶었기 때문에,

26) 매일신보 1942년 11월 2일자에 따르면 이때 '전부'에 대해 서두수가 "券二十에잇는 防人歌를주장 함이다 券十四에 防人歌라題標하고잇는 다섯首는 末尾에부처역하노라(서두수<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一)」 『매일신보』.)"고 말하고 있듯이, 그는 권20과 권14에 실려 있는 병사의 노래를 '전부'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병사의 노래는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밖에도 권 7·1265번 노래와 권13·3344~45번 노래, 권20에 '오른 쪽 8수는 옛 병사의 노래이다'라는 좌주(左注)를 둔 권20·4425~32번 노래 및 '옛날에 교체한 병사의 노래 1수'라는 제사(題詞)를 가진 권20·4436번 노래도 병사의 노래로 볼 수 있다.

27) '서설' 곧 쓸데없이 지루하게 오래 이야기하는 것.

28) 서두수(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29) 서두수(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30) 서두수(1942) 「防人歌(사찌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31) 여기서 서두수가 '피의 동맥'·'피의 논리'와 같은 표현을 쓴 것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본격화된 태평양전쟁과 그 전쟁에 참전한 일본군 병사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했다.³²⁾

한편 시인이자 번역가인 김억도 『만엽집』의 작품을 조선어로 옮겼다. 「만엽집초역」과 「선역애국백인일수」가 그것이다. 『만엽집』의 발췌 번역인 「만엽집초역」은 1943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는데, 총 60수 가운데 2수가 병사의 노래다. 1943년 7월 20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선역애국백인일수」에는 총 100수의 와카 가운데 병사의 노래가 6수 수록되었다. 이에 대한 정치(精緻)한 연구는 박상현의 「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 ‘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³³⁾와 「김억의 『鮮譯 愛國百人一首』 연구」³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에 의해 황국신민화와 국어(=일본어) 보급을 위해 김억이 병사의 노래가 포함된 「만엽집초역」과 「선역애국백인일수」를 조선어로 번역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³⁵⁾

요약하자면 서두수는 ‘진정한 일본심’ 곧 ‘진정한 충군과 애국의 정신’, ‘피의 동맥’·‘피의 논리’를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하기 위해, 한편 김억은 황국신민화와 국어(=일본어) 보급을 위해 『만엽집』을 조선어로 각각 번역했다.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서두수와 김억이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한 의도는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두수의 번역의도에는 당시의 지성계에서 유행했던 담론이 구체적으로 내면화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김억의 그것과는 달랐다. 즉 서두수는 1920년대 제국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지성계에서 유행했던 ‘민족성’ 담론의 영향을 받아 조선에 ‘일본심’의 이식 곧 일본 민족성과 심성의 이식을 위해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했던 것이다. 한편 김억은 『만엽집』을 번역할 때 국어(=일본어) 보급이라는 측면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는 데, 그것은 그가 ‘양장시조형’과 같은 자국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결국 서두수가 『만엽집』의 작품인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한 의도는 ‘진정한 일본심’ 곧 ‘진정한 충군과 애국의 정신’, ‘피의 동맥’·‘피의 논리’를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병사의 노래에 담겨 있는 그 ‘진정한 일본심’은 다름 아닌 일본 와카의 단가 형식인 5·7·5·7·7에서 ‘실현’된 것이었다. 따라서 병사의 노래를 어떤 리듬으로 재현할 것인가를 고민했

32)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키모리노우타):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3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232

33) 박상현(2009) 「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 ‘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6집,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34) 박상현(2009) 「김억의 『鮮譯 愛國百人一首』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35) 박상현(2009) 「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 ‘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6집,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p.194

던 서두수는 '진정한 일본심'을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무리를 하면서까지 병사의 노래를 5·7·5·7·7로 옮겼다고 판단된다.³⁶⁾

한편 김억이 병사의 노래를 포함한 『만엽집』의 작품을 조선어로 번역한 이유는 바로 황민화와 국어(=일본어) 보급, 특히 후자에 있었다. 이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따라서 '일본어와 조선어'를 같이 표기하는 대역(對譯)이라는 방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당시 조선인에게 낯선 5·7·5·7·7이라는 와카의 단가 형식보다는 조선인에게 익숙해 있었던 양장시조형이라는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김억은 판단했던 것이다.³⁷⁾

그렇다면 서두수에게 김억과는 다른 번역의도를 갖게 하고, 또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번역스타일을 선택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필자는 서두수와 김억의 학문적 토대를 주목하고자 한다.

4. 서두수와 김억의 학문적 토대

서두수는 일제 말기인 1942년 11월에 친일 문예월간지인 『국민문학』에 「병사의 마음(防人のこころ)」을 발표했다. 이것은 그가 야스다 요쥬로(安田与重郎)³⁸⁾의 『만엽집의 정신(萬葉集の精神)』(1942년 6월)과 경성제대 재학 시 스승이었던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³⁹⁾의 『요시노의 은어(吉野の鮎)-記紀万葉雜攷-』(1941년 9월)를 참조하면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소개한 평론이었다.⁴⁰⁾ 이에 대해 박광현은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36)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서두수가 매일신보 11월 2일자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어찌튼 될수잇는대로 意味로뿐만아니오 形式까지도-적어도言數에잇서서라도 全然다른傳統을가지고온 두가지를 가까지 그보게”했던 것이다.

37) 서두수와 김억에게 보이는 번역의도의 차이는 이와 같이 그들의 번역스타일 즉 ‘낯설게 하기’·‘익숙하게 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번역어’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서두수는 ‘大君’을 ‘聖上’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한 반면, 김억은 그것을 ‘우리님’과 같이 당시 조선인에게 익숙했던 고유어로 번역했다.

38) 문예비평가. 반근대주의적 미의식을 주장하여 1930년대에 각광을 받았다.

39) 일문학자. 경성제대 교수 역임. 『만엽집』뿐만이 아니라 『고사기(古事記)』·『일본서기(日本書紀)』에 관한 글을 다수 남긴 당대의 1급 학자.

40) 서두수는 야스다 요쥬로의 『만엽집의 정신』에서는 「만엽집의 전과(萬葉集の轉科)」를, 다카기 이치노스케의 『요시노의 은어』에서는 「만엽집 병사의 노래 1수(萬葉集防人歌一首)」를 각각 구체적으로 인용한다.

당시 전시상황에 조용하는 일본 고전 작품을 소개한 글은 『國民文學』의 「명작연구」라는 코너에 실린 「防人のこころ」(1942.11)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고대의 징병 군인들이 가족 등과 이별의 정을 노래한 萬葉集수록가요를 소개하면서 그 근처에 흐르는 ‘민족의 悲願’이니 ‘민족의 뜻(志)’을 분석하고 있다.⁴¹⁾

즉 서두수는 ‘당시 전시상황에 조용하는 글’ 곧 ‘민족의 비원이니 민족의 뜻’을 분석한 글인 「병사의 마음」에서 병사의 노래가 「충군과 애국(大君への忠<まこと>と國への誠<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⁴²⁾, 그가 병사의 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곧 그의 ‘병사의 노래관’을 명확히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서두수가 『만엽집』을 소개하는 자신의 평론인 「병사의 마음」에서 경성제대 재학 시절의 스승이었던 다카기 이치노스케의 저서인 『요시노의 은어-記紀万葉雜攷-』를 인용한 것을 보더라도 그가 다카기 이치노스케로부터 학문적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그는 광복 후에도 다카기와 비학문적인 교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카기 이치노스케는 『다카기이치노스케전집(高木市之助全集)』에서 서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서두수라는 인물이 있는 데, (그는) 경성제국대학(京城大學)이 개설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문학(日本文學)을 전공하기 위해 들어온 자로, **일본문학을 전공한다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조선인(珍しい朝鮮人)이었다.** 일본문학 전공으로 들어온 후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일본 패전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의 에리세후(英利世夫) 교수 밑에서 일한(日朝)문학비교 연구⁴³⁾로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시애틀주립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강의하고 있다.⁴⁴⁾ **작년(1966년. 인용자주)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나고야**

41) 박광현(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9집, 한국일본학회. p.365

42) 서두수(1942) 「병사의 마음(防人のこころ)」 『국민문학』, 인문사. pp.46-60

43) 그런데 지명훈은 현 카이스트 총장인 서남표의 일대기를 다룬 『서남표 천일의 기록』에서 서남표 총장의 아버지인 서두수가 교육행정학으로 최종학위를 받았다고 적고 있다. 서두수가 ‘일한문학비교’로 학위를 받았는지, 교육행정학으로 학위를 했는지는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명훈(2009) 『서남표 천일의 기록』, 동아일보사. p.18

44) 2007년 7월 19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광복 후 서두수는 서울대 국문과로 전직하게 되는 데, 1949년 7월 이후 그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돌연 미국의 컬럼비아대로 유학을 떠난다(문화일보, 2007년 7월 19일자). 그런데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서두수가 어떻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지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 지명훈에 따르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9년 그는 미 국무부 프로그램으로 해외 대학 시찰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귀국

(名古屋)의 우리 집에 들었다. 그도 또한 조금도 일본어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옛날처럼 자국 민족을 사랑해마지 않는 호한(好漢)이었다.⁴⁵⁾

위의 인용문은 광복 후에도 다카기 이치노스케와 서두수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을 잘 보여준다. 다카기는 서두수를 일제강점기에 일본문학을 전공했던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조선인으로 기억하고, 또한 조선민족을 사랑해마지 않는 호한으로 평가한다.⁴⁶⁾

결국 서두수는 경성제대 재학 시 스승이었던 다카기 이치노스케로부터 『만엽집』을 비롯한 일본 고전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 양상을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성제대 ‘국문학(國文學=日本文學)’ 강좌는 최초로 외지(外地)에 ‘진출’한 ‘국문학’이었는데, 이것을 연 사람이 바로 다카기 이치노스케다. 그는 1926년부터 1939년까지 경성제대에 재직했고, 재직 중에는 법문학부 학부장(1932년 3월 31일~1933년 3월 31일)도 역임했다.⁴⁷⁾

그가 경성제대 ‘국문과’에 몸담으면서 강의했던 강의과목의 전모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청구학총(靑丘學叢)』⁴⁸⁾의 휘보에 실려 있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강의제목 리스트는 다카기가 1931년부터 1936년까지 무엇을 강의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어려워져 거기에 눌러 앉게 되었다고 한다(지명훈<2009> 『서남표 천일의 기록』, 동아일보사. p.18). 다시 말하면 서두수는 처음부터 영구 정착을 목적으로 미국에 갔던 것은 아닌 것 같다. 한편 서두수는 1952년 하버드대학교에 초빙교수가 되어 한국어과를 창설했고(지명훈<2009> 『서남표 천일의 기록』, 동아일보사. p.18), 1984년 6월 8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1955년에는 워싱턴대학에서 한국관련 강좌를 담당했다고 한다.

45) 高木市之助(1977) 『高木市之助全集』 第九卷, 講談社. pp.195-196

(단, 이 글은 1967년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아사히신문에 연재한 것을 같은 해 8월 아시히신문사에서 『折り折りの人Ⅲ』로 수록한 것이다)

46) 그러나 ‘조선민족을 사랑해마지 않는 호한’으로서의 서두수라는 다카기의 평가에 대해, 박광현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국문학’의 인식과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에서 “그것은 자신이 민족의식을 매개로 해 조선인을 만났던 과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스탠스에 함몰된 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다.

박광현(2004)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국문학’의 인식과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일본학보』 제59집, 한국일본학회. p.247

47)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1974) 『紺碧遙かに-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耕文社. p.4

48) 청구학회의 학회지다. 조선총독부와 경성제대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것이 청구학회다. 이 학회의 취지는 조선과 만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문화를 연구하여 일반인에게 그 성과를 보급하는데 있었다.

정선이(2002) 『경성제국대학연구』, 문음사. p.119

- (1) 1931년도 강의제목-소설사(헤이안조<平安朝>에서 무로마치<室町>까지)⁴⁹⁾,
역대(歷代)민요선(選), 국어학국문학강독연습
- (2) 1932년도 강의제목-국문학개론, 근고모노가타리(近古物語)연습⁵⁰⁾
- (3) 1933년도 강의제목-중세문학개설, 기기가요(記紀歌謠)강독, 만엽집(万葉集)
연습⁵¹⁾
- (4) 1934년도 강의제목-국문학개론⁵²⁾
- (5) 1935년도 강의제목-상대문학사개설⁵³⁾
- (6) 1936년도 강의제목-헤이안조(平安朝)문학사개설, 고사기(古事記)강독,
근고(近古)문학연습⁵⁴⁾

경성제대 국문과 학생들이 『만엽집』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카기가 담당했던 1933년의 강의제목에 ‘만엽집(万葉集)연습’이라는 과목이 있었다는 것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은 경성제대 국문과 졸업생의 주요 졸업논문 제목을 봐도 짐작할 수 있는데, 1931년도 졸업논문에는 와타나베 타모츠(渡部保)의 「만엽집 반가에 대해서(万葉集の挽歌に就て)」⁵⁵⁾가 있었고⁵⁶⁾, 1936년도 졸업논문에는 가노 미츠루(狩野滿) 「만엽집소론(万葉集小論)」과 히구치 세츠하루(樋口節春) 「가키노모토노히토마로의 작품에 대해서(柿本人麿の歌に就いて)」⁵⁷⁾가 있었다.

서두수가 『만엽집』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이미 경성제대 예과를 다니면서부터였다고 추정된다. 1925년에 경성제대 예과 2회로 입학했던⁵⁸⁾ 서두수에게는 입학 동기로 고유섭, 이희승 등이 있었다.⁵⁹⁾ 그는 1927년 3월에 문과B조(組)⁶⁰⁾를 수료했다.⁶¹⁾ 1925년 자료는 아니지만 1943년 6월의 「경성제국대학예과교수요강」에 따르면 ‘고전과’의 ‘강독’에 필수 교재로 『고사기(古事記)』, 『논어』

49) 『청구학총』(1931)제4호, 청구학회, p.187

50) 『청구학총』(1932)제8호, 청구학회, p.205

51) 『청구학총』(1933)제12호, 청구학회, p.195

52) 『청구학총』(1934)제16호, 청구학회, p.127

53) 『청구학총』(1935)제20호, 청구학회, p.196

54) 『청구학총』(1936)제24호, 청구학회, p.200

55) 『청구학총』(1932)제7호, 청구학회, p.162

56) 「만엽집연습」이 개설되기 전인 1931년도 졸업논문에 『만엽집』에 관한 졸업논문이 발표됐다는 것은 1931년도 이전에 다카기가 이미 『만엽집』 관련 강의를 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57) 『청구학총』(1937)제27호, 청구학회, p.145

58) 이충우(1980)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p.268

59) 동아일보, 1925년 4월 2일자

60) ‘문과A조’는 법과 지망생이, ‘문과B조’는 문과 지망생이 들어갔다.

61) 『경성제국대학예과일람』(1927). 단 인용은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1990)제46권, 대학서원, p.116

와 더불어 『만엽집』이 들어가 있었고, 이들의 수업 시간은 1학년과 2학년을 합쳐 2년간 총 265시간이었다.⁶²⁾

따라서 서두수가 경성제국대학 예과 재학 시절에, 한편 1930년까지 경성제대 ‘국문과’에 다니면서 문헌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만엽집』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학했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⁶³⁾

한편 번역가이자 시인으로 그리고 평론가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억은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19세 때인 1914년에 독일하여 지금의 게이오(慶應)대학 문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부친의 급서로 인해 유학을 도중에 포기하고 21세인 1916년에 귀국하여 모교인 오산학교에 근무하게 된다.⁶⁴⁾ 그리고 1921년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 역시집인 『오너의 무도』를, 1923년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시집인 『해파리의 노래』를 각각 출간했다.

길지는 않았던 김억의 일본 유학시절에 관한 연구, 그리고 김억이 조선어로 번역했던 일본 작품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박상현이 「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 ‘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에서 후자에 대해 김억이 조선어로 번역한 일본의 시(詩)로는 노구치 요네지로(野口米次郎 : 1875년~1947년)와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 1872년~1943년)의 작품이 있었고, 와카로는 『만엽집』을 발췌 번역한 「만엽집초역」과 『애국백인일수』를 번역한 『선역애국백인일수』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구체적인 연구성과이다.⁶⁵⁾

김억은 게이오대학에서 정식으로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전공은 영문학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그리고 당시 게이오대학에는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시인과 번역가로 활동했던 노구치 요네지로가 있었고, 김억은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김억이 노구치 요네지로의 작품을 조선어로 번역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학문적 토대는 ‘영문학’이었고, 따라서 문헌학적 토대⁶⁷⁾ 위에 선 당시의 ‘국문학’인 ‘일본문학’

62) 『경성제국대학예과교수요강』(1943). 단 인용은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1990)제46권, 대학서원. p.11

63) 서두수의 경성제대 예과 재학 시절에 ‘국어(國語)’인 ‘일본어(日本語)’를 담당했던 교수는 곤도 도키지(近藤時司)였다. 그런데 곤도에게는 「일본상고의 시가집과 한일 사절(日本上古の詩歌集と日韓の使節)」(『小田先生頌壽記念 朝鮮論集』 大阪屋號書店, 1934)과 같은 논문이 있다. 이것은 『만엽집』에 실려 있는 신라 사절에 관한 글인데, 이것을 봐도 예과 시절에 서두수가 곤도 도키지로부 터 『만엽집』을 배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된다.

64) 이어령(1975) 『한국작가전기연구』(상), 동화출판공사. pp.82-83

65) 박상현(2009) 「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 ‘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66)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김억은 영문과에 진학했다고 한다. <http://www.aks.ac.kr/aks/Default.aspx>(검색일 2012.1.6)

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은 서두수와 달리 김억에게는 일본 문학에 관한 전문가적 평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반면에 서두수는 다음과 같은 일본 문학 관련 평론을 남기고 있다. 「일본문학의 특질」(인문평론, 1940년 6월), 「문학의 일본심」(삼천리, 1941년 9월), 「일본문학과 고전」(매일신보, 1942년 3월 28일~4월 3일), 「문학의 일본심」(조광, 1942년 5월 1일)⁶⁸⁾, 「일본의 생활미」(半島の光, 1942년 7월)⁶⁹⁾, 「명치문학이 발생했을 무렵(明治文學が生れる頃)」(춘추, 1942년 8월), 「명치의 소설(明治の小説)」(춘추, 1942년 9월), 「명치의 소설 : 속(明治の小説 : つづき)」(춘추, 1942년 10월), 「명치의 시가(明治の詩歌)」(춘추, 1942년 11월), 「병사의 마음」(국민문학, 1942.11), 「명치의 극문학(明治の劇文學)」(춘추, 1942년 12월), 「가모노 마부치(賀茂眞淵)」(국민문학, 1943년 6월)

5. 나오면서

지금까지 고찰해온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두수는 일본 와카의 ‘형식’인 5·7·5·7·7이라는 음수율이 당시의 조선인에게는 낯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존중하면서 『만엽집』을 조선어로 옮겼다. 반면에 김억은 5·7·5·7·7이라는 음수율을 가진 『만엽집』의 작품을 초장이 3·4·3·4이고 종장이 3·5·4·3으로 끝나는 양장시조형으로 번역했다. 결국 서두수의 『만엽집』 번역스타일은 원문중심주의·출발언어(日本語)중심주의였고 낯설게 하기 곧 이국화(외국화) 전략이었다면, 김억의 그것은 도착언어(朝鮮語)중심주의였고 익숙하게 번역하기, 곧 자국화 전략이었다.

둘째, 『만엽집』을 조선어로 번역했을 때, 서두수의 번역의도는 작품 속에

67) 경성제대 ‘국문과(일문과)’는 독일 문헌학을 중시했던 동경(東京)제대 ‘국문과’의 계보를 잇고 있다.

68) 서두수는 1941년 9월호 『삼천리』에 「문학의 일본심」을 발표했고, 1942년 5월호 『조광』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문학의 일본심」을 게재했다. 그는 『조광』에 실린 「문학의 일본심」의 말미에서 “講演(『삼천리』의 「문학의 일본심」. 인용자주) 舊稿에서”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삼천리』에 실린 「문학의 일본심」의 단순한 재탕이 아니었다. 분량도 『삼천리』의 「문학의 일본심」보다 약 3배 정도나 많았고, 『삼천리』의 「문학의 일본심」에는 보이지 않았던 인용도 있었다. 따라서 『삼천리』의 「문학의 일본심」과 『조광』의 「문학의 일본심」은 다른 텍스트라고 봐야 한다.

69) 간단하긴 하지만 이 문헌을 처음 언급한 것은 박광현이다

박광현(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9집, 한국일본학회. p.364

나타난 ‘일본심’ 곧 일본 민족성과 심성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반면에 김억은 황민화와 ‘국어(=일본어)’ 보급, 특히 후자에 『만엽집』의 번역의도가 있었다.

서은주는 「일본문학의 언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이라는 글에서 식민지 문인들이 일본문학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고대 및 중세문학을 본격적으로 읽기란 어려운 일인 만큼, 경성제대라는 제도적 교육을 통한 일본문학의 학습은 개인적 차원에서 문학적 지식이나 교양의 습득을 위해 동시대의 일본문학을 접했던 경우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고 말한다.⁷⁰⁾ 바로 이런 지적이 그대로 서두수와 김억에게 적용된다.

결국 서두수와 김억의 『만엽집』 번역에 보이는 번역스타일과 번역의도의 차이는 그들의 학문적 토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아카데미즘을 표방했던 제국대학의 ‘국문과’인 ‘일문과’에서 당대 『만엽집』 연구자의 1인자였던 다카기 이치노스케에게 문헌학적 토대 위에서 『만엽집』을 체계적으로 수학했던 서두수와 일본의 게이오대에서 영문학을 중퇴한 김억의 학문적 토대의 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런 학문적 토대의 차이에서 비롯된 번역상의 차이는 『만엽집』을 번역할 때, 김억과 달리 서두수가 『만엽집』의 연구서인 주석서⁷¹⁾의 체제를 의식하면서 각각의 작품에 그 작품에 대한 ‘해설’에 해당하는 ‘후기(後記)’⁷²⁾를 붙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⁷³⁾

70) 서은주(2008) 「일본문학의 언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 『제도로서의 한국 근대문학과 탈식민성』, 소명출판. p.291

71) 주석서는 보통 『만엽집』 원문, 한자·가나혼합문(讀み下だし文), 현대문, 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72) 참고로 앞에서 예시한 권20·4341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후기’가 달려 있다.

(後記) 어미여현절문邊防직이의眞情의吐露다. 사람네 가슴과기를과고든다.

73)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제강점기 이화여전에 재직하면서 일본문학에 관해 적지 않은 글을 발표했던 서두수를 많은 사람이 ‘한국학자’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런 사정은 1994년 10월 2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그의 사망 관련 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재미 **한국학자 서두수 박사**가 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인은 53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성균관대 총장을 지냈으며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하버드대 워싱턴대 등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강의, 미국 내에 한국학 연구자들을 대거 양성해냈다.** 이 같은 공로로 지난 85년 7월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유족은 미국 MIT교수로 재직 중인 서남표 박사 등 1남 3녀가 있다. 장례식은 21일 현지에서 치러졌다.”

서두수에게 ‘일본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고 싶어진다. 이점에 대해 박광현(2009)은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일본학보』 59집)에서 한국문학 전공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필자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일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 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싶다.

* 본고는 한국일본문화학회 제41회 국제학술대회(2011년 10월 22일, 백석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하여 확대·발전시킨 것임을 밝혀둔다.

【参考文献】

- 김 역(1923) 『오너의 무도』, 조선도서주식회사. p.14
- 김영심(2003) 「식민지조선에 있어서의 源氏物語-경성제국대학의 교육실태와 수용양상-」 『일본연구』 제21집, 한국외국어대학교일본연구소. p.40
- 박경수(1987) 『안서 김억전집』 제3권, 한국문화사. p.293
- 박광현(2004)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국문학’의 이식과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일본학보』 제59집, 한국일본학회. p.247
- _____(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일본학보』 59집, 한국일본학회. p.364
- 박상현(2009) 「김억의 『鮮譯 愛國百人一首』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121-140
- _____(2009) 「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 ‘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6집, 중앙대학교일본연구소. pp.179-196
- _____(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키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3-236
- 서두수(1942) 「병사의 마음(防人のこころ)」 『국민문학』, 인문사. pp.46-60
- 이어령(1975) 『한국작가전기연구』 (상), 동화출판공사. pp.82-83
- 이충우(1980)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p.268
- 임선묵(1981) 「선역애국백인일수-안서문학일반-」 『국문학논집』, 단국대학교국어국문학학과. p.192
- 정선이(2002) 『경성제국대학연구』, 문음사. p.119
- 지명훈(2009) 『서남표 천일의 기록』, 동아일보사. p.18
- 최현식(2008) 「이광수와 ‘국민시」 『근대지식으로서의 사회주의』, 깊은샘. p.323
- 金思燁(1984) 『韓譯 万葉集 1-古代日本歌集』, 成甲書房. p.3
-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編輯委員會(1974) 『紺碧遙かに-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耕文社. p.4
- 高木市之助(1977) 『高木市之助全集』 第九卷, 講談社. pp.195-196
- 동아일보(1937) 6월 25일자
- 동아일보(1984) 6월 8일자
- 문화일보(2007) 7월 19일자
- 매일신보(1939) 7월 22일자
- 삼천리문학(1938) 1월 1일자
- 삼천리문학(1941) 3월 1일자
- <http://www.aks.ac.kr/aks/Default.aspx>(검색일 2012.1.6)

要 旨

京城帝国大学で「朝鮮人」として当時の「国文学」(=日本文学)を専攻した者は、たった二人しかいなかった。徐斗銖と崔星熙がその人たちだ。崔星熙は卒業後、専攻を変えて法学科に進学してしまうが、彼女と違って徐斗銖は卒業した後、梨花女専で「国文学」(=日本文学)を教える教員となって日本文学に関する評論や論文などを発表しつづけた。その中でも特に注目されるのは、1942年11月2日から12日にかけて毎日新報に連載した「防人歌：稚拙な移植」といった防人歌の朝鮮語訳である。そこには『万葉集』巻20や巻14に納められている防人歌が朝鮮語で訳されている。

一方、韓国で詩人として、そして翻訳家として幅広く知られている金憶は『万葉集』からいくつかの作品を取り上げ、朝鮮語で翻訳した。そしてそれらをまとめて、「万葉集鈔訳」というタイトルで1943年7月28日から8月31日にかけて毎日新報に続けて掲載した。また、彼は「鮮訳愛国百人一首」を通じて『万葉集』の作品を植民地朝鮮の人々に紹介した。

徐斗銖と金憶が『万葉集』の作品、中でも防人歌を朝鮮語で訳して、植民地朝鮮の人々に移植しようとした理由は明確だった。彼らにおける翻訳意図は朝鮮人の皇国臣民化だった。このように二人における翻訳意図は基本的には同様だったが、その翻訳のスタイルはかなり異なった。徐斗銖は『万葉集』の作品を朝鮮語で翻訳した際、5・7・5・7・7といった短歌のリズムを保ちつつ訳した。一方、金憶は短歌の音数律を兩章時調型で訳した。そして、この違いは彼らにおける学問的背景からきたと考えられる。すなわち、文献学や『万葉集』の注釈書を身につけることによって可能だった徐斗銖の翻訳スタイルは、彼が京城帝国大学で近代的学問としての「国文学」をしっかり学んだからこそできたことであった。

キーワード：京城帝国大学、徐斗銖、万葉集、翻訳、翻訳のスタイル、翻訳意図

투 고 : 2012. 2. 29
1차 심사 : 2012. 3. 17
2차 심사 : 2012. 4. 7

